

어르신 생명 구한 열혈 사회복지사들

남구노인복지관 전재욱·하상훈씨 심폐소생술 실시

“큰일났어. 큰일났어.”

남구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로 어르신이 뛰어 들어오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3층 장기실에서 갑자기 한 어르신이 쓰러졌다며 알리러 뛰어내려온 것이다. 이미 위급 상황을 감지한 직원들은 반사적으로 별책 자리에서 일어나 3층으로 뛰어올라갔다. 한 어르신이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 피가 나고 혀가 말려 올라가며 기도가 막히고, 심장이 뛰지 않는 상황이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하상훈 과장은 입에 손을 넣어 기도를 확보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뒤 이어 올라온 전재욱 부장은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장기실 밖으로 물리고, 하상훈 과장과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복지관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매년 화재대응훈련과 함께 심폐소

생술 교육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심폐소생술을 배워왔지만 실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심폐소생술은 교육과는 달랐다. 119 구급대가 오기까지 10여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119 구급대에 어르신을 인계하고 뒤로 물러선 그들은 땀 뻘뻘이 되어 있었다.

하상훈 과장이 병원까지 동행해 보호자에게 어르신을 인계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어르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 몇 차례 어르신 상태를 확인했으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어르신이 남구노인복지관에 다시 나타났다. 그날 이후 두세 달을 더 병원에 있었고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며 노인복지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오신 것이었다. 전재욱 부장과 하상훈 과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



남구노인복지관 직원들.

며 응급상황에서 직원들이 다함께 잘 대처해준 결과라며 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쁘다고 했다. 어르신은 이제 노인일자리도 참여하고 평소처럼 장기도 두려울 정도로 회복했다고 한다.

남구노인복지관은 매년 서너 번은 119

가 출동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많고, 그래서 직원들은 매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남구노인복지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하상훈 과장과 전재욱 부장도 이제껏 있었던 사고 중 가장 큰 사고였으며, 그래서 더욱 더 어르신이 건강하게 회복해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 온정을 나눠주세요

오갈곳 없는 아픈 숙희씨를 도와주세요

“너무 춥고 배고픈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썽한 옷차림이지만 무언가 어슬픈 행색으로 구경을 찾아온 숙희(55세,가명)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불러오고 손발이 부어 움직일 수 없는 숙희 씨를 본 여관주인의 119신고로 인근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비가 없어 긴급 처치만 하고 퇴원하였고, 더 이상 여관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집을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며칠을 길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가 백만원 넘게 나왔지만 그것조차 낼 수 없어 천천히 갈기로 각서를 쓰고 퇴원을 하였지만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려 구경을 찾아갔고, 다행히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 임시숙소에서 지내게 되어 이제는 길에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숙희 씨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결혼해서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식당에서 일을 하며 혼자 생활 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일의 연속이지만



혼자 벌여 혼자 지내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점점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소득이 줄면서 월세도 내지 못해 여관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복수가 차오르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숙희 씨는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을 헤쳐 나갈 힘도 없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혼자 걸을 힘조차도 없습니다.

오늘도 병원비 독촉 문자가 계속 오고 있고, 값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지만 미납된 병원비 때문에 병원 치료는 꿈도 꾸

지 못할 뿐더러 지금 지내고 있는 임시숙소에서조차 언제 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늘 혼자였고 무겁기만 했던 숙희 씨의 삶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성금 감사합니다

2020년 4월에 게재된 순정씨 사연에 대하여 사단법인 나눔재단 20만원, ○○○온정님 10만원, ○○○온정님 3만원, ○○○온정님 2만5천원, ○○○온정님 5만원을 순정씨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도움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 607-4862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부산은행 315-01-000297-0

(예금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자명 뒤에 '온정'을 붙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예시-홍길동은행)

복지관 등에 사무용품 기부

남구 용당동 소재 부산사무가구(대표 김보문)에서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린이집을 위해 사무용품 1,300만원 상당을 후원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소파도 지원한다.

감만종합사회복지관 ☎634-3415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자 모집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월 1일부터 복지관 운영재계 권고 통보시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200세대에게 생필품(쌀, 과일, 김, 밀반찬 등)을 지원할 기부자를 모집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9

남구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 대응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및 식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생필품, 즉석식품, 직원들이 한뭇 한뭇 직접 만든 마스크를 담은 '키트'를 2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지역장애인에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지관 앞 평화공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구운 쿠키와 온커피, 냉커피를 나누며 '함께함'이 그리운 요즘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감염예방을 위한 복지관의 휴관 중에도 지속적인 공원 간식나눔과 온소토랑을 통한 이용자 및 지역장애인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는 각 프로그램별 수업자료 공유 및 감사와의 동영상 강의 제작을 통해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장애인복지관 ☎626-6991

나사함… 온라인 수업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대표5동 소재)에서는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복지관을 이용하던 발달장애인들은 이날부터 집에서 화상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수업 방식은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이 아닌 이용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수업 내용은 녹화되어 다시 가정에 제공되는 방식이다. 40분의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627-8521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용호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희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매주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당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오수윤)는 관내 경로당 5곳 및 새빛기독보육원에 부산사무가구의 후원으로 소파(700만원)를 전달했다.



감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영별)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재개 전까지 매주 2회 독거노인 40세대에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있다.



우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병렬)는 취약계층 55세대에 '희망 복귀리미 김세트'를 전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살폈다.



문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중호, 김희자)는 매월 취약계층 혼밥 10세대에 '밥맛 좋은 DAY'를 운영해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문현2동 별별마켓(대표 강효림)은 3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취약계층에 마스크 1,000장(15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문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동식, 김재하)는 2018년부터 매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20세대에 반찬배달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현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3월 10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대용 손소독제 1,000개(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웃돕기 소식



○...위대항병원(원장 조유찬)에서 남구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인창대연오양병원(대표 염수원)에서 남구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연두(대표 서상우)에서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구포국수(30g) 15,060개를 기탁,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60개소 시설에 전달했다.

○...불곡사(대연4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포를 기탁했다.

○...(주)ABM(회장 김병철)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구에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지회장 김태유)는 4월 9일(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필티교체형 수제 면마스크 6,500매를 남구에 전달했다. 면마스크는 지난 3월 26일부터 2주간 총 400여명의 새마을회원들이 참여해 장애인단체 등 꼭 필요한 주민을 위해 제작되었다.

○...문현동 소재 인각사(주지 정영선님)에서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구에 쌀, 라면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대연동지점(지점장 박혜영)은 4월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남구에 마스크 500개를 전달했다. 농협은행 대연동지점은 2014년부터 교육비 지원, 이웃돕기 성금,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살균소독제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HS학삼(주)(대표 이형도), (주)KB팜(대표 홍중표)에서 4월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구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친환경, 무독성 살균소독제인 썬수 250개(2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주)와이에이치 모터스 앤 오토파트(대표 이동현)는 4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기에 여성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남구에 여성용품 3,200개를 기탁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제7지역(지역부총재 이무성)에서 4월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구에 마스크 500장을 전달했다.

○...유엔평화기념관 패밀리서포터즈(회장 권순은)에서는 지난 3월 31일 남구에 코로나19 대응 생필품 세트 500개(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유엔평화기념관 패밀리서포터즈는 각종 구호활동 및 해외봉사활동, 세계평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공운수노조(지

회장 변오영)에서는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나눔릴레이를 진행해 4월 8일 남구에 헌혈증 27매를 전달했다. 이날 기증된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골수이형성증 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시설 소식



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성희)에서는 코로나19로 복지관의 운영이 중단된 2월 24일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식생활이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매회 150명분의 식료품을 방문 전달하고 있다. 식료품 지원은 복지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암동 전주식당, 문현동 친구네식당 등 지역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647-3655